

52. 자동차부품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산발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성별	남성	나이	만 52세	직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1994년부터 약 27년간 □사업장에서 라디에이터 등 생산제품의 샘플제작 작업자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2020년 7월에 발생한 상지의 연축을 시작으로 양측 상·하지의 근력이 점차 약화 및 위축되어 2021년 11월부터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등을 통해 2022년 3월 2일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약 27년간 납, 주석, 용접흙, 유기용제 등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이 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2022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1994년 12월에 □사업장 입사해 연구소의 “시작실”에서 2019년 12월 까지 약 25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요양급여 신청일)까지 약 2년 동안 동일 연구소 “성능시험실”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가 근무한 시작실의 주요 업무는 라디에이터(열교환기) 시제품(샘플) 제작과 각종 구조물(지그, 적치대) 제작 및 기계 수리 작업이었다. 작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라디에이터 시제품 제작이었으며 약 12년간 수행하였다. 2006년부터는 시제품 제작과정에서의 과도한 납땜 및 도장, 세척 작업으로 인해 외부협력업체로 이관되었다. 2006년 이후에는 각종 구조물(지그, 적치대) 제작 및 기계 수리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주 6일 근무, 12시간/일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입사 이후부터(1994년 9월) 2000년대 초반까지(약 8-9년간), 월평균 약 2회 휴일특근, 월평균 약 1-2회 철야근무를 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20년 7월에 상지에 근육이 튀는 연축 현상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 1월 기존에 수월하게 수행하였던 턱걸이 운동을 근력저하로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다. 2021년 3월에 오른쪽 허벅지의 저림 증상이 있어 방문한 A대학병원에서 요추 4, 5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6월 진단받았으며 8월에 척추유합수술을 받았다. 9월 수술 이후에도 보행이 불편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과 함께 점차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고 상지의 근력이 저하되는 등 증상이 심해졌다. 이후 A대학병원에서 2021년 11월, 2022년 3월 두 차례의 신경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해 2022년 3월 2일 산발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Sporadic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를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질환의 2차적인 원인 규명 및 치료 계획을 위해 2022년 6월 B대학병원 신경과를 방문하였으며, 대뇌 및 척수의 구조적 이상, 암, 혈액의 비정상단백질 유무 검사 및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관련된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평소 고지혈증 이외에 특이 질환은 없었으며 비흡연자라고 하였다. 가족력으로 아버지 고혈압이 있었으나, 상병과 관련한 특이 질환 및 가족력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남, 1970년생)는 2022년 3월 2일 산발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장의 연구소에 근무하여 생산제품의 샘플제작 및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하였다.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 요인으로는 납, 유기용제, 유기인계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환경에서 납 및 유기용제의 노출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납과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